

‘절편녹용’, 양보 없는 전쟁

- 뉴, ‘올해 안에 마무리짓는다’, 한, ‘말도 안되는 소리’ -

절편녹용 수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뉴질랜드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6월25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실시되는 5차 한뉴경제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4월30일 뉴질랜드 Hon Annette King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절편녹용 수출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해 왔다.

지난해에는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을 내한, 농림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뉴질랜드산 절편녹용 수입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그야말로 뉴질랜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절편녹용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뉴질랜드는 절편녹용 품질기준을 올해안으로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한국내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뉴질랜드는 사실상 올해 안으로 절편녹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마무리 짓겠다는 복안으로 국내 양록인들에게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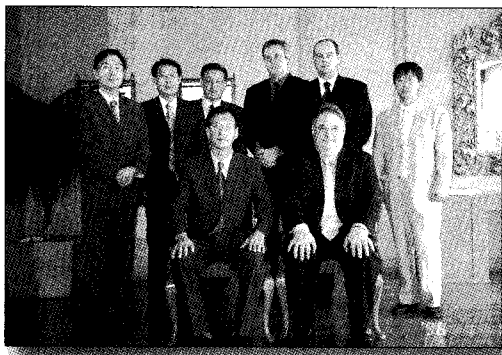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해 9·11 결의대회 후 우리측 정부에서 생산자

단체인 본회의 의견에 귀를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측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본회와 절편녹용 관련, 대책회의를 갖는데 이어 지난 6월 1일 다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본회의 의견을 수렴해 갔다. 특히 정부관계자들은 “절편녹용 문제가 97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협상 진행에 어려움은 있지만 국내 양록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기본 입장을 밝혀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본회가 뉴질랜드양록위원회(GIB)와 상호 우호증진 및 양국간 양록산업의 공동발전이라는 목표로 관계를 증진시켜온 것도 절편녹용 협상의 원만한 해결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실제로 GIB는 지난해 “어느 한쪽의 피해를 담보로한 무조건적인 절편녹용 수입은 원치 않으며 양국의 교류협력으로 제 3시장을 개척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측 정부도 본회와 GIB와의 교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측 정



▲ 사진은 지난해 9월 본회와 회담을 갖은 뉴질랜드 양육위원회

부 한 관계자는 “절편녹용을 수출하려는 뉴질랜드 정부도 그것을 생산해내는 생산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간의 유기적인 관계는 정부간 협상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밝히며 양국 생산자 단체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절편녹용 관련 대정부 간담회에서 본회는 ‘절편녹용 수입 절대 불허’란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절편녹용 수입시 국내 양육농가의 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생녹용이 절편되어 수입될 경우 국내 양육농가의 최소한의 생계마저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생녹용 시장 만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조된 절편녹용 수입 역시 반대하는 한편 수입이 허락된다하더라도 국내 농가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은 유예할 것과 국내 수입 물량을 제

안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뉴질랜드가 절편녹용을 수출하려는 명목이 ‘녹용이 뉴질랜드산임을 확실히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해 왔음에 따라 절편건녹용 수입이 확정되면 전지 녹용은 수출치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절편녹용 수입시 국내 양육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25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실시되는 제 5차 한뉴경제공동위원회에 맞춰 본회는 절편녹용 협상과 관련된 양국 정부 관계자 및 GIB, 본회가 함께하는 4자 회담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측 정부 및 GIB에 협조를 요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GIB는 지난해 제 5차 한뉴경제공동위원회부터 4자 회담을 실시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 정부는 “양국 정부와 생산자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은 정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지만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회 관계자 역시 “한국 생산자들의 요구사항을 뉴질랜드 생산자 대표인 GIB가 얼마만큼이나 이해하고 수용하느냐가 절편녹용 협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금번 4자 회담이 절편녹용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견했다. **한국양육**